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16.6.16(목) ~ 6.17(금)

웨 스토 피 아 (보 령)

3농 혁신대학

「산림자원 육성」 과정



충청남도

www.chungnam.net

차 례

I. 운영계획

1. 운영개요 -----
2. 진행계획 -----
3. 세부 운영계획 -----

II. 사례발표

1.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 활성화 사례 -----
2. 대리 산림경영 사례 -----

III. 주제강연

1.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

IV. 주제토론

1. 숲가꾸기 기술 및 정책 제언-----
2. 환경친화적 숲가꾸기 방안-----
3. 숲가꾸기 사업의 체계화 방안-----
4. 숲가꾸기 작업 효율적 실행방안-----
5. 숲가꾸기 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붙 임

자 료

- i) 3농혁신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
- ii) 참석자 현황 -----
- iii) 숙소배정표 -----
- iv) 교육생활 시설 현황 -----

I. 3농혁신대학 「산림자원 육성」 과정 운영계획

◇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핵심주체간 토론을 통한 가시적 실천과제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I 운영개요

- 때 · 곳 : '16. 6. 16(목) 14:00~17(금) 11:00/웨스트피아(보령)
- 참석 : 80명(산림경영인,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목재생산업자 등)
- 주제 : 미래지향적인 숲가꾸기 방향?
- 진행흐름

1일차 (6. 16)	사례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림자원육성 및 경영 활성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원규 산림경영인협회충남지회장 ② 대리 산림경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현 산림법인 솔외우드 산림산업(주) 대표
	주제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임영 한국산림기술사협회회장
	문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공연(색소폰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 웅천 색소폰 동아리
	전체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인 숲가꾸기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 이찬호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패널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진선필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김석권 전)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 이인세 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구기운 산림기술사 손주철 서천군산림조합 상무 구우회 당진시 산림복지과장
	종합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내용 정리, 마무리 말씀
2일차 (6. 17)	현지연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림 산림사업장 방문(보령 성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가꾸기, 조림지, 임도·사방시설지 등

II

진행계획

구분	시간		소요 (분)	세부내용	비고
	부터	까지			
1일차 (6.16)	13:30	14:00	30'	참석(입교)자 등록	농업기술원
	14:00	14:10	10'	일정안내	사회자
	14:10	14:50	40'	[사례발표] ① 산림자원육성 및 경영 활성화 사례 - 산림경영인협회 최원규 충남지회장 ② 대리 산림경영 사례 - 산림법인 솔외우드 산림산업(주) 박성현 대표	
	14:50	15:00	10'	휴식	
	15:00	15:15	15'	사진촬영 및 입교식	
	15:15	15:25	10'	인사말씀	도지사
	15:25	15:30	5'	환영사	보령시장
	15:30	16:10	40'	[주제강연]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이임영 산림기술사협회회장
	16:10	16:20	10'	휴식 및 장내 정리	
	16:20	16:40	20'	[문화공연] 색소폰 연주	웅천색소폰동아리
	16:40	19:10	150'	[전체토론] 미래지향적인 숲가꾸기 방향? ▶ 진행 : 이찬호 공주대 명예교수 ▶ 패널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진선필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김석권 전)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이인세 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구기운 산림기술사 손주철 서천군산림조합상무 구우회 당진시산림복지과장	휴식시간 포함
	19:10	19:30	20'	[종합정리] 토론내용 정리, 마무리 말씀	정무부지사
	19:30	20:30	60'	만찬 및 친교의 시간	산림복지과장
	20:30			휴식 및 취침	
2일차 (6.17)	07:30	08:30	60'	조찬 및 준비	구내식당(10층)
	08:30	11:00	150'	[현지연찬] ▶ 도유림 산림사업장 방문(보령 성주) - 숲가꾸기, 조림지, 임도·사방시설지	도유림관리 사무소
	11:00			종료(해산)	

III

세부 운영계획

1 일 차



6. 16(목)

□ 등 록(13:30 ~ 14:00 / 30분) / 웨스트토피아(오서홀)

□ 일정안내(14:00 ~ 14:10 / 10분)

□ 사례발표(14:10 ~ 14:50 / 40분)

- ① 산림자원육성 및 경영 활성화 사례
 - [최원규] 산림경영인협회 충남도지회장
- ② 대리 산림경영 사례
 - [박성현] 산림법인 솔피우드 산림산업(주) 대표

□ 기념 사진촬영 및 입교식(15:00 ~ 15:15 / 15분)

- 사진촬영 : 오서홀(단상) / 참석자 전원
- 입 교 식 : 국민의례 및 주요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15:15 ~ 15:30 / 15분)

- 인사말씀 : 도 지 사(10분)
- 환 영 사 : 보령시장(5분)

□ 주제강연(15:30 ~ 16:10 / 40분)

-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 [이임영] 한국산림기술사협회회장

□ **문화공연**(16:20 ~ 16:40 / 20분)

- 색소폰 공연(초혼, 섬마을선생님 등 4곡)
- 연 주 : 응천색소폰 동아리

□ **전체토론**(16:40 ~ 19:10 / 150분)

- 주제 : 미래지향적인 숲가꾸기 방향?
 - 진행 : [이찬호] 공주대 명예교수
 - 패널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진선필]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김석권] 전)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
[이인세] 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구기윤] 산림기술사
[손주철] 서천군산림조합 상무
[구우회] 당진시 산림녹지과장

□ **종합정리**(19:10 ~ 19:30 / 20분)

- 토론내용 정리, 마무리 말씀 등
- 진행 : 정무부지사

□ **만찬 및 친교의 시간**(19:30 ~ 20:30 / 60분) * 메뉴:쭈썸불고기

- 장 소 : 웨스트피아 식당(10층)
- 참석대상 : 임교자 전원
- 사 회 : 산림녹지과장
- 진행방법 : 만찬을 겸한 자연스러운 대화의장

2 일 차



6. 17(금)

□ **아침식사 및 준비**(07:30 ~ 08:30) ※ 웨스토피아 식당(10층)
(메뉴 : 사골곰탕)

□ **현지연찬**(08:30 ~ 11:00 / 150분) ~ **종 료**(11:00)

○ 도유림 산림사업장 방문(보령 성주)

- 숲가꾸기, 조림, 임도·사방시설지 등

※ 안내 :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사무소장

II. (사례발표)

1.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 활성화

산림경영인협회 충남도지회장

최원규

(자 료)

II. (사례발표)

2. 대리 산림경영

산림법인 솔외우드 산림산업(주) 대표
박 성 현

(자 료)

Ⅲ. [주제강연]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회장

이 임 영

(자료)

IV. (주제토론)

1. 숲가꾸기 기술 및 정책 제언

(전)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
김 석 권

숲가꾸기 기술 및 정책 제안

오늘 토론회 주제인 미래지향적인 숲가꾸기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중요한 자리에 패널로 초청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4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을 마지막으로 35년간의 연구 생활을 뒤로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조림 육림, 수확, 갱신 등 이른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반성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의 미래지향적인 숲 관리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당장 숲가꾸기 작업을 해야 할 대상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경제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를 걱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숲가꾸기가 산림 관리 전략에 어떤 영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주요 수종의 산림상황에 대한 조림학적 접근을 통해 산림관리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숲가꾸기 대상이 되고 있는 임분은 인공림에서는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낙엽송림이고 천연림에서는 소나무, 해송, 참나무림입니다. 이들 임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참나무림은 병충해 피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들 수종은 언제까지 한반도에서 산림경영의 중심적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조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잣나무는 우리나라 백두산, 개마고원, 부전고원 등 한대림 지역과 온대북부지역에서 주로 생육하는 수종인데,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북한지역을 비롯하여 온대중부지역에까지 인공식재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림면적을 확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생각지도 못한 재선충병이 남부지역부터 북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나무는 전국적인 분포를 하고 있으나 일제 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송충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온대남부 및 난대지역의 해송림과 생육 경쟁을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다.

참나무림의 경우는 1980년대까지 왕성하게 실시하였던 참나무류 맹아갱신이 1990년대부터 조림정책에서 보육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2차, 3차림(맹아림) 상태에서 노령림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산지대를 주요 생육지를 하고 있는 신갈나무가 저산대에서 쇠퇴하는 과정에 참나무시들음병에 피해를 받게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들이 심고 가꾸어 온 수종들의 조림학적 특징에서 보면 과연 이들 수종이 언제까지 한반도에서 경영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접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새로운 산림 경영 환경에 맞는 조림수종 선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한반도에 심었던 수종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실을 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현재까지, 산림정책연구회보 2016.1월호)

특히, 1922년 조림학의 대가 Bühler박사는 당시 일제가 한반도에 도입수종(일본 56지역, 외국 55지역)에 의한 대면적 조림을 계획(1925~1936년, 시식지 제1기사업)하는 것에 대하여 『외국수종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거나, 가로수나 경관림 조성과 같이 경관을 위해 일부 식재는 할 수 있으나, 대면적 시업림 조성은 부적합하다』 고 하면서 선부른 도입수종의 조림을 경계한 바 있는데, 바로 치산녹화사업기간에 주요 수종이었던 삼나무,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양황철나무 등 외국수종에 대한 조림결과를 되돌아보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산림경영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하는 특화조림이나 막연한 소득을 위한 조림이 아니라, 토지의 생산력과 수종별 생산성을 고려한 효율성이 높은 조림을 하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경영수준을 높여 임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기본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는 험벗은 산지를 녹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로 양수성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하는 정책이 우선이었으나, 현재는 녹화된 산림을 경제림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게 조림수종, 경영목표, 목재산업 등을 고려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목재생산이나 산림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산림경영림으로 전환시켜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왜냐하면, 양수성 수종만으로는 영속적인 임상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음성이 있는 반음수성, 음수성 수종을 도입하여 천이성 임분(복층림, 혼효림 등)으로 전환시키는 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용재림경영은 물론 복합경영, 복지경영 등 다양한 경영을 위한 조림수종의 발굴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리기다소나무 경우를 통해 지금의 시대를 재조명하면, 리기다소나무는 1907년 일본 우에키교수가 미국에서 도입한 종자를 수원에서 양묘하여 1930년경부터 종자를 채취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면서 조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극심하였던 소나무 송충이피해 확산을 막고 척박지 조림이 가능한 수종으로 소나무 대체수종으로 선정하여 사방지 및 연료림 조성을 시작한 이래 1980년대까지 대규모로 조림되었으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리기다소나무 최대 조림국가가 되었다.(1, 2차 치산녹화 시 조림 수종에서 제외)

아울러, 리기다소나무에 대해 1932년 “리기다소나무 일반”의 저자 우에키교수는 서문에서 지금 리기다소나무가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Pitch pine in Pennsylvania의 저자 Illick가 말한 『임업의 경험은 오늘날 무가치한 나무라 하더라도 내일은 유용한 목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바로 리기다소나무가 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무지를 가르치고자 하였으며, 지금 우리들의 임업·임산업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Illick와 우에키교수의 조림수종을 선정하는 조림학적 식견(예언) 그대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로 숲가꾸기 기술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지침을 제정(2004.5.)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들면서 가능한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산림기능 구분, 지역산림계획, 숲가꾸기 설계와 감리, 적합한 임목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조적 수단(선목 등)을 강구하여 왔으나, 과연 그 결과는 어떤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잘못되었다면, 정말 기술이 정립이 안돼서 인지? 규정이 잘못되어서 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산림사업 중 천연림개량사업이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천연림개량사업을 줄이거나 잠정 중단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시 천연림을 손댈 수 있는 유일한 작업방법은 천연림보육(1984년부터 20년간 실시)뿐 이었는데, 천연림개량작업은 유령림단계(수고4~8m)에 있는 어린 숲을 대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침에 반영한 새로운 작업법인데, 이를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천연림을 손댈 방법이 없을 텐데... 형질적으로 부족한 천연림을 조금 손봐서 중경재라도 수확할 수 있도록 숲을 가꾸자는 보육작업 기술인데, 갱신대상지 같은 보육대상이 아닌 임분에 작업을 한 결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지요.

지금 숲가꾸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합하게, 적당하게, 적기에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숲가꾸기 지침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규정입니다.

1999년 제정된 독일 헤센주의 친자연적인 경영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침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모델)

또한, 가장 최근에 바뀐 벌기령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벌기령은 법적으로 임목을 자를 수 있는 임분의 나이입니다. 즉, 그 이전에는 자르지 말라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벌기령 운영의 예를 들면, 일본 삼나무 편백의 법정 벌기령이 40년이라도 산림 경영목표상 생산하고자 하는 임목의 크기가 40cm라면 60년, 또는 70년생 때 수확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목재생산림에는 목표생산재라는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벌채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는 40년 이상 된 임목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숲가꾸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알기 쉽게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어찌면 이런 일은 산림경영 목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경영목표가 없는 숲가꾸기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994년 국내 독립가분들과 함께 임업선진지 연수를 위해 교토 인근 릿토라는 산촌을 방문하였을 때, 현지에서 만난 80세 되신 독립가가 직접 편백에 올라 낮으로 가지치기 하면서 하신 말씀을 통역하면서 느꼈던 전율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임업은 3대에 걸쳐 완성되는 일이고, 할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가꾸어야, 그 자식이 수확을 할 수 있지요』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 새겨 봅니다.

IV. (주제토론)

2. 환경친화적 숲가꾸기 방안

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이 인 세

환경친화적 숲가꾸기 방안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실시한 숲가꾸기 사업의 확대에 의하여 숲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숲의 구조가 다층화 되어가며 생태적으로 안전성이 증진되면서 경관적으로도 가치도 향상되고 있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분야가 양적성장과 산림관리의 정책의 전환에 힘입어 국민들이 '숲을 가꾸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주변 숲이 잘 가꾸어져서 건강을 유지된다고 체감하는 시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숲가꾸기는 무엇이고, 발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하여 보도록 한다.

1) 기능에 적합한 숲가꾸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산주와 시민들이 원하는 숲가꾸기는 무엇인가 파악해야한다. 따라서 경제림가꾸기와 공익림가꾸기에 대한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야한다.

큰나무 경제림가꾸기에 해당하는 목재생산림의 기능을 갖는 숲에 대해서는 장래 목재생산을 통해 사유림소유자에게 경제적 소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숲가꾸기가 필요하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간벌률이 매우 낮게 적용되는 설계를 적용하여 중하층의 작은 나무를 주로 제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생하는데, 숲가꾸기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관경쟁 상층 대상목 제거가 실행 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산림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원함양림 기능이나 산지재해방지림의 기능에 적합하게 수자원함양을 증진 시킬수 있다든지, 토사유출이나 산림병해충으로부터 강한 다층혼효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야할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능은 큰나무공익림가꾸기에 구분되는 생활환경보전림과 산림휴양림 기능을 갖는 숲이다. 최근 여가시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등산이나 산책을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다양한 형태의 산림휴양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잘 정비되어있는 산림휴양시설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권 주변이나 등산로주변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기능이 생활환경보전림과 산림휴양림지역 또는 이외의 기능을 갖는 숲이라도 등산로주변과 임연부에는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지치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물수빙이나 정리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2) 미래목 선목이 기본이다.

숲 가꾸기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목에 대한 선목이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선목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미래목 선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작업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없다. 현재 추진되는 숲 가꾸기에 미래목이 잘못 선정되면 장래에 대상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숲의 경제적 또는 공익적 피해는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시공자가 미래목을 제대로 선정할 수 없으면서 산림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최근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작업품질과 작업 효율성은 제거목 선목의 품질과 정비례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제거목 선목의 품질과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업자에 의한 선목을 중단하고 설계자에 의한 선목을 해야 한다. 지자체별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큰나무가꾸기 사업의 일정 비율은 선목 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충남도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초기부터 매년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 점검시에 전문가(산림기술인, 환경단체, 산림기술사)를 위촉하여 함께 시행하여 현장중심의 숲가꾸기 사업품질향상과 기술적인 개선 노력하고 있다.

1년 2회 충청남도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관련 계획과 설계중심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현장 사업품질과 감리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미비한 점에 대한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타시군 우수사례 전파, 숲가꾸기 기술 상담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4) 작업 대상지의 집단화가 필요하다.

사업 대상지를 집단화 하지 못하고 소면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파편화되어 숲가꾸기의 질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주 동의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처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업 대상지가 파편화 될 경우 작업의 질과 효율성, 경계의 정확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작업 대상지의 규모화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5) 설계·시공·감리자의 자격 강화하여 전문가가 숲을 가꾸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숲을 가꾸는 일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감리능력이 부족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서나 감리보고서가 서류 맞추기에 급급한 경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실한 산림법인체가 시공에 참여하여 숲가꾸기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확인된다.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으로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숲가꾸기 사업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산림사업의 추진상에 저해가 되는 법인 또는 주체들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접근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적격한 설계·시공·감리자에 사업을 방조하는 담당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

6) 숲 가꾸기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숲가꾸기 관련업무가 점차 기술의 발달로 전문화되어가며,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과 다양한 민원의 발생 등의 이유로 점차 일부 지자체에서 회피하는 분야로 되고 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수행하고 있는 숲가꾸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지자체와 담당자, 시행주체 들에게 시상하고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7)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점차 국내 숲가꾸기 사업의 양적 성장과 산림관리 정책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질적인 수준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관련 조사자들이 숲가꾸기 기술 향상의 속도에 관련종사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설계·시공·감리 참여업체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표준 매뉴얼 강독회, 선진 해외견학, 국내 선진지 견학, 교차 평가, 자체 교육, 워크숍을 통한 정보 교환과 업무체계 확립이 필요한 수준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V. (주제토론)

3. 숲가꾸기 사업의 체계화 방안

산림기술사
구 기 운

숲가꾸기 사업 체계화 방안

우리나라의 산림은 1970~80년대 치산녹화사업을 통하여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국토녹화에 성공하였다. 온 국민이 IMF로 시름하던 1998년부터 공공숲가꾸기사업 및 정책숲가꾸기를 통하여 산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켰다.

산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숲의 성장과정에 따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숙아베기 등 단계적 시업이 필요하다. 숲가꾸기를 게을리하여 가꾸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숲은 쇠퇴하여 목재생산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함은 물론, 태풍, 산사태, 병충해에도 취약한 쓸모없는 산림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사실은 임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러나 최근 십여년간 잘 이루어지던 숲가꾸기 사업에 산주동의라는 장벽이 나타났다. 숲가꾸기 사업은 ‘시·군의 사업대상지 선정 - 산주동의를 통한 사업대상지 확정 - 숲가꾸기 설계 - 숲가꾸기 시공 및 감리 - 준공’의 순으로 이루어 진다.

기간에는 산주동의서 뿐 만 아니라, 부동의를 표현하지 않는 소극적 산주에 대하여 고시공고를 통한 방법으로도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이 산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숲을 풍요롭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 정책에 따라 산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은 소유하고 있으나, 숲의 가치에는 무관심한 많은 산주의 산림을 더 이상 가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숲의 공공 기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숲은 개인의 무관심에 의해 방치 할 수 없는 공공재로서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누려야 하는 자산으로 키워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개인의 이상과 가치는 물론 사유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주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 충남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같이 사유림의 비율이 높고, 부재산주가 많으며, 소면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것은 산림경영에 좋은 조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산림경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도, 작업로 등 숲으로 진입하기 위한 소규모 도로인데, 이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의 집단화가 필요하다.

소규모 산림을 가진 수많은 산림소유자가 모두 동의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영 단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숲가꾸기 프로세스의 일부를 변경해야 한다.

그것이 숲가꾸기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산림경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산주는 많지 않다. 이러한 산주에게 “귀하의 산은 숲가꾸기가 필요하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투의 동의 절차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적어도 자신의 산 및 그 주변의 산림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시의 적절한 산림사업이 귀하의 산림에 어떠한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계획이 첨부된 동의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숲가꾸기 지침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시·군은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없이 사업계획만으로 산주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숲가꾸기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숲가꾸기 기본계획은 적어도 시공 2년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기본계획을 통하여 산주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관심의 시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주의 산림을 진단하고 관리하여 그 들의 산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작업로망 계획 및 산물 수집량 분석을 통하여 적은 부분이라도 산주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십여 년간 쇠퇴하여 가는 산림에 속아베기 등 산림사업으로 보다 건강한 숲을 만들어 왔다. 이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숲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판단된다. 기간 축적된 숲가꾸기 기술을 응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주동의라는 장벽을 넘는다면 충남의 산림은 더욱 건강해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IV. (주제토론)

4. 숲가꾸기 작업 효율적 실행 방안

서천군산림조합 상무

손 주 철

숲가꾸기 작업 효율적 실행방안

(양질의 임업노동력 확보 방안)

□ 임업노동의 일반적 특성

- 산림사업 대상지가 넓고 험하여 필요한 자재의 수송과 작업감독이 타 산업과 비교하여 감독이 곤란함.
- 산림사업 대상지까지 이동시간이 길어서 실제 작업 시간이 짧음.
- 타산업의 노동력을 산림사업의 벌채, 운반 노동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훈련이 필요 함.

□ 숲가꾸기와 임업노동력의 관계

- 숲가꾸기 사업시행자의 임업기능인 확보사항 명시화.
(작업원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기능인력을 50%이상 확보)
- 숲가꾸기 실행시 작업원의 자격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숲가꾸기의 질의 향상은 작업원의 숲가꾸기 이해도와 실행능력에 의하여 결정됨.

□ 숲가꾸기 임업노동력의 확보 방안

- 숙달된 양질의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숲가꾸기에 종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안정화가 선결요건.
- 지역별 임황이 상이하므로 지역에 최적화된 기술인력이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숲가꾸기 실행 시기 및 기간 조절.
- 사전설계를 실시하여 숲가꾸기 공백기로 인한 타산업분야로의 이탈 방지.
- 기술인력의 우선채용으로 종사자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하여 신규 기술인력 취업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 충청남도내 산림조합 임업기능인력 현황

(2016년 기준)

구 분	영림단수	인 원			비 고
		계	자격보유자	미자격자	
임업기능인	41	410	318	92	

IV. [주제토론]

5. 숲가꾸기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당진시 산림녹지과장

구 우 회

숲가꾸기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I 애로사항[문제점]

1. 구조적인 문제점

- 산지 대부분이 사유림(전체 산지의 90% 이상)
- 대부분 영세 산주(개인당 산지 소유면적 소규모)
 - 1ha미만(46%), 1-2ha(22%), 2-3ha(11%)
- 부재산주 다수(타지역 거주 산주 소유 임야가 57%)
- 산지 소유목적이 묘지조성, 타용도개발, 지가 상승 목적의 투자 등을 이유로 산지를 소유

2. 경제적인 문제점

- 장기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반면 자본 회수 기간이 길고 소득이 미미함
⇒ 산주가 숲가꾸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관심이 없음

3. 제도적인 문제점

- 숲가꾸기를 한 후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전용할 경 경우 국고보조 사업비를 회수하게 되어 산주가 개발계획이 없어도 막연히 숲가꾸기를 기피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숲가꾸기를 시행 할 경우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함 (산주의 무관심으로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

4. 기술적인 문제점

- 숲가꾸기 사업은 권역별로 집단화하여 추진하여야 사업의 효과가 크고 작업의 효율성이 있으나 산주동의 받기가 어려워 사업구역이 산발적으로 소면적 파편화되어 사업효과나 작업의 능률성이 떨어짐
- 숲가꾸기 산물을 임지에 깔아 놓아 임지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산불 발생시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부정적 시각이 있음
- 숲가꾸기 방법이 하층, 중층, 상층 임목이 조화를 이루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주는 물론 국민들도 하층 식생을 깨끗이 제거해주길 원하고 있음

II

개 선 방 안

1.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권역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집단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령개정)
2. 산림조합을 통하여 산주 동의를 징구하고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 제도 법제화
3. 숲가꾸기 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재활용하도록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제도 개선(산불확산방지, 병해충 발생억제, 산림바이오매스활용,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4. 숲가꾸기 사업 실행 산지에 대한 과감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3농혁신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농어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뿌리 산업이고, 농어촌은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삶의 터전이며, 농어업인은 식량안보와 전통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에 우리는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없음을 인식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3농혁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친환경 고품질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에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착한소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하나, 우리는 농어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꾸고 자랑스런 전통문화를 발전시킨다.

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2016. 6. 16.

3농혁신대학 「신림자원육성과정」 참석자 일동

참석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00명														
도	간	부	도	지	사	안 희 정												
			정	무	부	지	사	허 승 욱										
환	경	정	책	특	보	(1)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최 진 하										
주	제	강	연	(1)		산림기술사협회 회장	이 임 영											
사	례	발	표	(2)		산림경영인협회충남도지회장	최 원 규											
						솔외우드산림산업(주)대표	박 성 현											
종	합	토	론	(7)		도	지	사	안 희 정	진행 이찬호 (공주대 교수)								
						산림청	산림	자원	과장		진 선 필							
						전)	국립	산림	과학원		박사	김 석 권						
						대전·	충남	생명의	숲		사무처장	이 인 세						
						산	림	기	술		사	구 기 운						
						서	천	군	산림		조합	상무	손 주 철					
						당	진	시	산림		녹지	과장	구 우 회					
전	문	임	업	인	(30)	산림경영인·임업후계자		김기일 외 29명										
3	농	혁	신	위	원	(5)	임업추진단		송기숙 외 4명									
산	림	조	합	(16)		산림조합		이수희 외 15명										
산	림	관	련	단	체	(26)	사방협회충남지부		권남옥 외 1인									
							양묘협회충남지회		김현희 외 2명									
							산림기술사협회충남지회		유승용 외 7명									
							산림사업법인		김기용 외 6명									
							원목생산업		서동은 외 5명									
지	원	기	관	(14)		환	경	녹	지	국	장	신 동 현						
						농	정	국	장	정 송								
						농	업	기	술	원	장	김 영 수						
						농	업	정	책	과	장	방 선 업						
						농	업	기	술	원	역	량	개	발	과	장	한 익 수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	이 원 행				
						임	업	시	험	과	장	강 길 남						
						시·	군	산	림	녹	지	관	련	과	장	7명		

【 붙임 】

전문임업인(30명)

단 체 명	직 위	성 명	비 고
산림경영인·임업후계자	지 회 장	김 기 일	부여
“		정 진 중	공주
“		구 윤 자	금산
“		김 영 식	금산
“		김 동 복	청양
“		김 복 자	계룡
“		김 봉 미	아산
“		박 종 하	공주
“		정 제 호	당진
“		허 윤 오	당진
“		염 윤 상	당진
“		정 영 진	보령
“		권 녕 일	보령
“		하 태 윤	홍성
“		김 해 경	홍성
“		박 찬 익	청양
“		양 효 석	부여
“		유 송 열	금산
“		이 명 숙	보령
“		이 정 근	논산
“		이 정 철	공주
“		오 정 연	부여
“		정 진 남	공주
“		박 해 환	부여
“		정 칠 성	청양
“		오 재 형	부여
“		김 천 호	청양
“		서 덕 원	서천
“		이 인 복	서천
“		이 성 희	서천

□ 산림조합(16명)

조 합 명	직 위	성 명	비 고
산림조합중앙회충남지역본부	본 부 장	이 수 희	
보령시산림조합	조 합 장	윤 문 희	
천안시산림조합	상 무	박 경 근	
공주시산림조합	상 무	이 정 후	
보령시산림조합	상 무	유 근 후	
아산시산림조합	상 무	임 운 규	
서산시산림조합	상 무	문 진 환	
논산·계룡시산림조합	상 무	신 현 호	
당진시산림조합	상 무	김 주 백	
금산군산림조합	상 무	윤 동 진	
부여군산림조합	상 무	방 희 선	
서천군산림조합	상 무	손 주 철	
청양군산림조합	상 무	한 창 훈	
홍성군산림조합	상 무	배 후 식	
예산군산림조합	상 무	최 승 현	
태안군산림조합	사업과장	이 협 철	

□ 산림기술사(8명)

사 무 소	직 위	성 명	비 고
산림기술사사무소 임원	대 표	김 종 호	보령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대 표	박 승 관	태안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대 표	유 승 용	공주
아름다운산산림기술사사무	대 표	박 현 승	아산
(주)백제산림	대 표	구 기 운	아산
청연산림기술사사무소	대 표	장 승 래	금산
(주)산림기술사 늘산애	대 표	김 도 호	당진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대 표	허 원 무	서산

□ **산림사업법인(7명)**

법 인 명	직 위	성 명	비 고
대 한 산 림	대 표	이 윤 정	공주
(주) 당 진 임 업	대 표	홍 여 선	당진
(주) 기 은	대 표	구 윤 성	보령
(주) 라 경 임 업	대 표	강 인 자	공주
(주) 명 산		백 상 훈	청양
(주) 포 리 스투	대 표	이 상 근	부여
(주) 태 선 엔 지 니 어 링	대 표	장 기 현	예산

□ **원목생산업(6명)**

업 체 명	직 위	성 명	비 고
늘 푸 른 임 산 개 발	대 표	오 동 환	공주
보 령 임 목	대 표	이 명 관	보령
신 용 임 산	대 표	반 인 호	청양
평 화 임 업	대 표	서 동 은	공주
(주) 보 령 원 목 조 경	대 표	유 재 옥	부여
대 흥 우 드 산 업 (주)	대 표	이 치 선	보령

□ **사방·양묘협회(5명)**

단 체 명	직 위	성 명	비 고
(특) 사 방 협 회 총 남 지 부	지 부 장	권 남 옥	
(특) 사 방 협 회 총 남 지 부	팀 장	전 용 준	
(사) 한 국 양 묘 협 회 총 남 지 회	지 회 장	김 현 회	
(사) 한 국 양 묘 협 회 총 남 지 회	전 무	구 남 승	
(사) 한 국 양 묘 협 회 총 남 지 회	회 원	김 창 운	

□ **3농혁신 위원(5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공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명예교수	이 찬 호	민간단장
한 국 양 묘 협 회 총 남 지 회	회 원	양 정 모	부여
보 령 산 채 연 구 회	회 장	백 승 운	보령
산 림 정 책 평 가 위 원	위 원	송 기 숙	금산
총 남 연 구 원	책임연구원	이 관 룰	

□ 시·군 산림관련과장(7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천안시 산림녹지과	과 장	이창희	
보령시 산림공원과	“	김호원	
아산시 산림녹지과	“	한명수	
서산시 산림공원과	“	조병진	
계룡시 농림과	“	김수현	
당진시 산림녹지과	“	구우회	
예산군 산림축산과	“	임병호	

□ 운영 및 진행요원(23)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농업정책과	팀 장	조일교	
2	“	주 무 관	한지훈	
3	산림녹지과	팀 장	최영규	
4	“	팀 장	김승환	
5	“	팀 장	이상춘	
6	“	팀 장	서도원	
7	“	주 무 관	윤효상	
8	“	주 무 관	김기호	
9	“	주 무 관	김창기	
10	“	주 무 관	최용	
11	“	주 무 관	이태윤	
12	“	주 무 관	강번재	
13	“	주 무 관	고대열	
14	“	주 무 관	김기연	
15	“	주 무 관	이충훈	
16	“	주 무 관	김창환	
17	“	주 무 관	백동열	
18	“	주 무 관	이주택	
19	“	주 무 관	김영배	
20	농업기술원역량개발과	전문교육팀장	곽세우	
21	“	주 무 관	최인훈	
22	“	주 무 관	이상희	
23	“	주 무 관	곽유나	

※ 운영 및 진행요원은 대상인원에 미포함

숙소 배정표

층수	호실	인원 (명)	숙박자명단
계		82	
3층	303호	4	VIP
	304호	4	VIP
4층	403호	4	김 호, 최진하, 이찬호, 김석권
	404호	4	이수희, 이인세, 최원규, 이임영
7층	705호	6	신동헌, 정 송, 김영수, 방선엽, 한익수, 조일교
	706호	6	이돈규, 이원행, 강길남, 권남옥, 전용준, 구남승
8층	801호	6	김헌희, 김창운, 양정모, 이관률, 표정기, 김기일
	802호	6	김영식, 김복동, 박종하, 정제호, 허윤오, 염윤상
	803호	6	박찬익, 양효석, 유승열, 이정근, 이정철, 오정연
	804호	6	정진남, 박해환, 서덕원, 정칠성, 오재형, 김천호
	805호	6	박성현, 백상훈, 이상근, 장기현, 김기용, 오동환
	806호	6	반인호, 서동은, 유재욱, 백승훈, 김기일, 정진중
9층	906호	6	송기숙, 구윤자, 김복자, 김봉미, 김해경, 홍여선
10층	1001호	6	시·군 과장, 산림조합, 산림기술사협회
	1002호	6	진행요원

교육 생활 시설 현황

□ 주 소 : 충남 보령시 옥마벚길 10(명천동)

□ 위 치



□ 운영장소

회의진행	웨스트피아 오서홀(2층)
식사	웨스트피아 식당(10층)

□ 숙소

본관동 3~4층	18평(온돌) 4실(1실당 4인 기준) / 16명
본관동 7~10층	39평(침대) 11실(1실당 6인 기준) / 66명

